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아픈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는 금잔화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장○○나 / 남○○여자중학교

엄마 아빠! 이제 몇 개월 후면 고등학교로 가게 돼요. 앞으로 어떤 대학교를 가고 무슨 일을 할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과 안개 같은 걱정이 제 마음을 혼듭니다.

‘나의 미래!’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행복을 만들지 생각하며 작년 11월에 TV에서 보았던 칼라 타미를 떠올리며 살짝 고민을 털어 놓습니다.

주인공이 적십자사 일행과 도착하자 온 마을 사람들은 금잔화 꽃목걸이를 선물하며 환대를 하였지요. 환영의 행사가 끝나고 마을 상황이 방영되던 중 특히,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올해 열여섯 살, 영어 선생님이 꿈인 히말라야 소녀 ‘칼라 타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녀는 소여물을 베다가 그만 손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음 날, 칼라 타미는 일 년에 다섯 번 정도 방문하는 의사선생님께 상처를 보이기 위해 산길을 걸어 갑니다. 온몸을 떨게 하는 한기와 손가락의 파고드는 고통에 진통제를 주었지만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내 가슴을 후비는 느낌이었답니다.

저는 칼라 타미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후유증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배부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흘러 보낸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로 시간에 한 사람에 관한 동영상을 보았지요. 바로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연설이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모두 없고 단지 왼쪽 다리에 조그만 발가락만 있었지요. 그 사람은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라고 느끼며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 키우는 부모님과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은 닉 부이치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금잔화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팔에서 금잔화는 환영과 행운의 상징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환영해주고 병 때문에 일어서지 못한 채 꿈도 희망도 모두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의사’라는 저의 작은 꿈을 키워 희망과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제 꿈, 아직 모르고 계셨죠? 이제 저의 꿈을 더 튼튼하게 키워 칼라 타마와 같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큰 나무로 자랄 것이라는 약속을 드려요. 아픈 이들의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는 금잔화 같은 의사가 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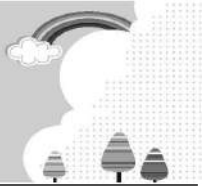
제 작은 꿈이 더 큰 나무와 꽃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2015년 8월 20일

둘째 딸 ○○나 올림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첫 선택의 준비운동 ‘드림레터’

강○정 / 학부모

고등학교 진학을 시작으로 진로를 놓고 갈등했던 나의 학창 시절과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일찍부터 시작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리 특기를 발견하고 개발하면서 많은 준비의 시간들을 보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체험과 실습만이 아이를 크게 키울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 발 빠르게 체험관을 예약하고 아이를 무한정 기다리는 시간들도 보냈었지만,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엄마가 원하는 일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가끔은 냉전 기류가 감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초등학교생이었을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란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을 맞이하면서 불안하기 시작했고 뭔가를 더 해줘야 할 거 같고 도와줘야 할 거 같은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한 아이가 주섬주섬 꺼내놓은 안내문들 속에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제2호 중학생 자녀의 진로지도’라는 문구를 보다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작년에도 받아보았던 안내문이었지만 관심 있게 대하던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이의 꿈이 자주 바뀌어 고민이라는 엄마의 글에 ‘애들도 엄마도 집집마다 다 비슷하구나!’ 하고 생각하니 왠지 동지가 된 거 같고 한결 맘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학기 동안 아이가 전달해준 총 17호까지의 ‘드림레터’를 보면서 저는 아이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가던 서점에서 아이의 어떤 분야에서 오래 머무는지 어떤 책들을 좋아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고 휴대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때도 무엇을 하는지 슬쩍슬쩍 들여다보며 아이의 관심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드림레터에 소개되는 직업들 중에서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고,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 네이미스트, 정밀농업기술자 등 생소한 직업들을 알게 되면 호기심을 갖게 하는 대화로 시작해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찾거나 듣게 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 직업 관련 학과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을 마주칠 때마다 “뭔가를 해라”, “싫어”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저녁 시간은 서로 뭔가를 더 알아내어 말해주는 재미가 쏠쏠하게 느껴지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학교는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운영합니다. 한 학기만이라도 꿈과 끼를 찾는 진로 탐색 기회라는 취지와 맞게 드림레터 구독이 준비운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 흥미를 고려해서 선택과목을 결정했습니다. 저 또한 아이의 결정에 대해 잘해보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자신 없어 보이지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아이가 등 떠밀려서 선택하는 진로가 아닌 본인 스스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을 찾아내어 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2학기에 배달될 드림레터도 기대합니다.